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하)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에 나선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으로 상상되는 대부도의 미래는?

대부도는 성장관리계획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엄격해 주민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겠지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추진 동력이 생기면서 지역 발전의 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은 기반시설 구축과 상업·주거 기능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어 대부도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보유한 개인도로 하부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필수 인프라를 설치하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만큼, 안산시가 직접 나서서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가 재정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필수 전략이며, 이를 통해 대부도의 도로 및 기반시설 개선이 추진되고 인구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현재 폐염전과 바다낚시터 등 택지개발 대상지가 핵심 개발지역으로 꼽히며, 이들의 개발 방향과 속도에 따라 대부도의 미래 모습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이 지역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방침 아래 추진된다면,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를 균형 있게 이루는 미래형 관광·주거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발계획이 부실하거나 주민·투자자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개발 지연과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대부도의 하수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신청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수시설의 처음과 끝이 없어 건축 준공시 난감한 경우가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도의 10년 후 모습은 성장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 개발, 시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토지주와 주민 간 협력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 보전,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람사르습지 지역 주변을 제외한 해변가 지역은 관광지로 중점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리조트 사업, 상업시설유치로 밤에도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유흥시설유치가 필요하다.

대부도에 인구가 늘면 도로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 병원, 취미시설도 유치가 가능하다. 시화방조제를 6차선으로 늘리고 대부도에 신안산선을 끌어오면 인구도 늘고 관광개발도 유리하겠지만 그 기대는 요원하다.

우선 급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러면 방조제도 넓어지고 전철도 들어오고 시화호에 더 많은 연육교도 생길 것이며 안산에서 화성이나 시흥시를 지나지 않고 곧바로 대부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시화호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대부동복합청사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대부도는 미래가 없다. 쉬운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내게 되면 10년 후 대부도의 미래는 △멀리 가지 않아도 병원이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은행이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섬 대부도가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안산시와 경기도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시가 민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내년 6월이면 안산시장과 안산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다.

대부도에 민투가 활성화 되도록 공약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 일꾼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하는 이유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주민 모두가 누리는 거점 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산시가 만든다

안산시는 19일 거점지역에 안전·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이만근 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수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기타교실 회원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주말 맞아 인파로 넘쳐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이 주말을 맞아 가족 중심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안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4일 토요일 바다항기테마파크에 마련된 대형 주차장은 더해브CC 행사장을 찾는 골프객들의 승용차와 함께 관광객의 승용차로 가득 메워졌고 방아머리 앞을 지나가는 대부항금로도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모래사장에서는 썬텐과 간단한 먹거리를 챙겨 먹고 해안가 갯벌에서는 맘껏 갯벌체험을 즐기는 아이들의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김태창 기자

市, 23개 상권 참여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시작

대부도에서는 유일하게 구봉도상가변영회 포함

안산시가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연합회 등 23개 상권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행사를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진작 프로젝트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상권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3만 원 또는 5만 원 이

상의 상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상인회에 제출하면 최대 20%의 페이백 혜택을 받거나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 통큰세일 행사는 전통시장 4곳(▲안산패션타운 ▲공상품유통상가 ▲스타프라자 ▲신안코아)·상점가 6곳(▲한대앞역 ▲도리섬 ▲예술광장로 ▲선부광장로 ▲고잔뜰 ▲사리골)·골목형상점가 2곳(▲샘골로 ▲초지항아리)·골목상권 10곳(▲일동상점가사람들 ▲와동 ▲중앙제1상인회 ▲중앙제2상인회 ▲기사촌 ▲

선부3동골목 ▲사동골목 ▲중앙광장 ▲구봉도상가변영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열린다.

자세한 상권별 참여·할인 내용은 경기도시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근 시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 이번 통큰세일 행사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편집국 기자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대학(2.3년) 졸업 이상 기 타 : 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광고/사업국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기 타 : 1.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2.차량소지자 우대
영상제작편집국	0명	경력사항 : 경력자(영상 제작 편집 가능자) 학력사항 : 학력 무관 기 타 : 유튜브 제작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지원부문 명기)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 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행사 가져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2025년 제2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에서는 지난 6월 11일 장애인식개선 아나바다 플리마켓(이하 플리마켓) '함께하는 지역사회,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내 비장애인,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통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9일 개최된 제1회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는 두 번째로 열린 플리마켓으로 지역 내 다문화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제1회 플리마켓의 수익금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선부가치기움터)와 해양가치기움터에 각각 쌀 12포씩 전달됐으며, 이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다문화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아나바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모습이다.

소명원 시민기자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과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은 "이번 플리마켓을 통해 장애인과 다문화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장애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앞으

로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5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참여자들이 주관하는

플리마켓은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지역 내 다문화가정 지원, 장애인의 권리증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소명원 시민기자

안산도시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안산시 공공기관 최초 쾌거 청렴·반부패 기관 표준 모델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획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 내 부패행위와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다.

해당 인증은 반부패·청렴문화 실천 노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수단으로서 높은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번 인증을 위해 감사실 주관 하에 전 부서를 대상으

로 ▲부패방지방침 수립 ▲부패방지매뉴얼 및 절차서 제정 ▲부패 리스크 진단 및 평가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 등을 포함한 전사적 부패방지 운영체계를 ISO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인증심사에서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한 점과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은 안산도시공사가 청렴을 조직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문화의 선도모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오른쪽)이 안산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후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市, 끼와 열정 가득한 ‘2025년 안산시 청소년예술제’ 마쳐



안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과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2025년 안산시 청소년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양운영 기자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과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

안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과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2025년 안산시 청소년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 전희일)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관내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뽐내고 교류하는 문화축제의 장이다. 올해 예술제는 5개 분야(음악 ▲무용 ▲문예 ▲사물놀이 ▲대중문화) 11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총 83팀, 48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이어졌다.

심사 결과, 음악·무용·사물놀이·대중문화 분야에서 대상 15팀, 최우수상 13팀, 우수상 17팀, 장려상 15팀이 각각 선정됐다. 문예 부문 수상자의 경우 오는 20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소년예술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은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리는 '제33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에 안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예술제 무대가 끼와 재능을 나누며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안산시, 성호장 재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성호장, 실학사상의 대표 성호 이익이 거주한 가옥

안산시는 17일 성호박물관 대강당에서 안산의 대표인물이자 실학사상의 대표 성호 이익이 거주한 가옥 '성호장(星湖莊)' 재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은 성호장 재현을 위한 전반적인 구상에 대한 것으로,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고건축 ▲박물관 ▲문화유산 활용 등 5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연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자문단으로는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향토사연구자, 주민자치위원,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에 대한 방향과 연구방법, 용역 일정 및 계획과 관련한 내용 공유와 자문위원들의 의견 교환의 자리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8월 중순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보고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참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 계획은 이후 성호박물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호박물관(031-481-25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선영 교수는 "안산시가 성호장 재현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안산'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성호 이익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이번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안산시는 17일 성호박물관 대강당에서 안산의 대표인물이자 실학사상의 대표 성호 이익이 거주한 가옥 '성호장(星湖莊)' 재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여름철 풍수해 대비 우려 지역 찾아 합동점검 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조치

안산시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4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민안전과·녹지과·단원구 도로교통과·상록구 도로교통과 등 관계 공무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차도와 급경사지 등 피해 우려지역의 주요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는 여름철 재난에 특히 취약한 지하차도 2개소, 급경사지 2개소에 대해 시민안전과와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지역으로는 ▲반지하 주택 2개소 ▲지하차도 13개소 ▲침

수 우려 도로 5개소 ▲해안가 2개소 ▲낙시터 9개소 ▲수상레저 1개소 ▲산사태 우려 지역 6개소 ▲급경사지 2개소 등 총 40개소다. 시는 이번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 점검에서 배수로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공장은 "선제적인 현장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중호우가 찾아지는 여름철에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박해철 의원 ‘청년 일자리 도약 3법’ 대표발의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 시급식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병, 사천)은 13일,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했다. 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급락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50만 원 수준에서 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을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 중인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무 부적합, 근로조건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1회에 한해서 사회안전망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지만, 작금의 현실은 고용·주거·소득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도약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법안 발의이고, 입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기환 도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학과개편 예산 ‘고무줄 편성’ 안돼 ‘지적’

도교육청, 추경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 41억3,500만 원 편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총액교부사업 항목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으로 41억 3,500만원을 편성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놓고, 불과 몇 달 뒤 동일

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책 판단이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당시에는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갑인석 예산담당관은 “해당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일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학생들의 진로 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정책이 집행부의 판단 변화에 따라 손쉽게 반복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리는 일”이라며, “특성화고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소상공인 지원 취지 무색
배달 쿠폰 99.8% 민간
배달플랫폼 공룡 3사
정산 독식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렀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집행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

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원은 집행을 33.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며 “예산도 묵히고 행정력도 낭비된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3년 경기도 취득세수가 전년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될 사업에 도비 약 1억 9천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도 재정 효율성을 크게 해친 일”이라며

“국가가사업이라 해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일괄 협약에 따른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중앙정부에 공공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포함을 강하게 건의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은미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실효성 책임성 함께 점검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의 불용률이 47.4%에 달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질적 대상자에게 맞춤형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방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불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세밀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시의회 도시환경토, 초지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현장 점검

16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나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6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초지동 666-2번지에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일환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주요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단원구청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초지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

장은 면적 2만8,890㎡에 주차면수 205면 규모로, 불법 화물차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돼 2024년 10월부터 무료로 개방·운영되고 있다.현재 운영률은 125%에 달하며, 높은 수요에 따라 사동 89블록 내에 주차장(면적 4만280㎡, 주차면수 300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대형자동차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차장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차량의 무단 주차나 장기 방치 등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2회 사랑나눔대축제 14일 대부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대부도복지센터와 대부초, 대남도, 대동초 학부모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축제

제2회 대부도 사랑나눔대축제(이하 대축제)가 1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대부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부도지역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대축제는 대부도복지센터와 대부초, 대남도, 대동초 학부모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대부도 복지센터는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다.

주요 내용은 플리마켓, 먹거리, 체험, 무대행사가 함께 동시에 진행됐다.

플리마켓은 악세사리, 키링, 귀걸이, 비즈공예, 마크라메 소품, 풍선아트, 행주, 수세미 등 전문 플리마켓 업체가 참여해 대부도 학생 및 주민들과 함께 했다.

플리마켓 한 쪽에서는 대부도내 지역주민들이 들고 나온 옷, 신발, 모자, 의류 등의 판매부스도 마련됐다.

먹거리는 닭강정, 소떡소떡, 타코야끼,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등을 판매하는 푸트트럭 3대 외에도 주민들이 짜장면, 군만두, 김밥, 파전, 묵밥, 음료, 빵 등 식사료와 팝콘, 슬러쉬,

커피 등 간식류도 준비했다.

체험행사는 모기피피제 만들기, 바이킹 타기, 비눗방울 놀이, 키링과 파우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액자만들기, 보드게임, 타로체험, 바람개비 만들기, 정수기 만들기, 바다유리 만들기, 캘리그래피, 식물심기, 로봇과 오목대결, 선감학원 역사 듣기, 전통 놀이 체험, 굴렁쇠 굴리기 등이 학생

과 주민들을 불러들였다.

대부지역 학생들의 그림과 동시 응모전에 대한 인기작 스키커 붙이기와 대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홍보부스에도 학생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축제 중간에 대부중·고등학교 밴드부 공연과 신나는 난타공연, 신기한 버블쇼, 아름다운 국악 공연은 대축제장을 찾은 주민들과 학생들을 축제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고, 대축제마무리 시간에 진행한 신나는

레크레이션과 공모전 시상식은 이날 대축제를 화려하게 정리하는데 화려함을 더했다.

이날 대축제에는 사회복지법인 강물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이경우 관장과 복지관 관계자, 안산시 청소년재단 단원청소년수련관 김기정 관장과 수련관 관계자 등이 대축제장을 방문해 축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해 대축제를 빛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이킹체험장이다. 한 번이라도 더 타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김태창 기자

구봉도상가번영회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월례회의

김학운 회장, 이민근 시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만나 간담회 가진 내용 보고

구봉도상가번영회(회장 김학운)는 5일 오후 5시 구봉도 소재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구봉도상가 및 펜션단지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이민근 시장과 이동표 단원구청장과 가진 면담건에 대한 설명, 2025년도 선진지 견학일정, 구봉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연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당초 회의는 이날 3일이었는데 대통령 선거일과 겹쳐 5일로 순연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이날 회의부터는 녹음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회의 후 필요한 회원에게는 녹음 내용은 물론 녹음기도 빌려줄 수 있음이 공지됐다.

김학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민근 시장과 이동표 단원구청장을 만나 구봉도 모노레일 설치건, 가로등 경관 조명 설치건, 대부동에서도 지역상 품권을 사용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면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건의서도 작성해 전달하기 위해 오늘 건의서 작성 설문지를 돌릴테니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봉도상가번영회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활성화 기금 지원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골목상권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인대학 15기가 대부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대부도에서 또 가능



구봉도상가번영회는 지난 5일 오후 5시 구봉도 소재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밖에도 오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구봉도버스킹 공연장에서 상권활

성화 공연이 펼쳐지고 30일에는 선진지견학을 가기로 확정했다.

추가적으로 구봉도 제2주차장의 벽면이 인근 개발붐과 함께 성토가 이

뤄지면서 주차공간이 생겨 이 곳에 주차장을 확장하기로 했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가수 이미자의 섬마을선생님음악회 94회째 공연 펼쳐



가수 이미자의 '섬마을선생님' 노래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섬마을선생님음악회'가 94회째를 맞아 14일 오후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김태창 기자

14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야외무대에서 진행

가수 이미자의 '섬마을선생님' 노래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섬마을선생님음악회'가 94회째를 맞았다.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방아머리 해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음악회가 바로 94회째 맞는 음악회다.

이날 음악회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 안산지부와 이미자가수 섬마을선생님 노래보존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안산시 문화예술과는 이날 음악회

를 지원했다.

대부도는 이미자의 3대 명곡 중 하나인 '섬마을선생님'의 노래 배경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

대부남동 소재 대남초등학교가 '섬마을선생님'의 배경지라는 것은 전 KBS 김재형PD(용의눈물 제작)의 증언이 있었고, 서울과 대부도를 오가던 두몽·마포나루 소금배 선장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또 대부도의 자연환경생태나 20개의 염전, 각종 철새, 해당화 등은 '섬마을선생님' 노래 가사와 일치한다고

대부도사랑풍물패 15일 수원장안공원에서 공연 펼쳐

전통농악보전 목적으로 11년전 대부도에서 창단

전통농악보전 목적으로 11년전 창단된 대부도사랑풍물패가 지난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수원시가 주최한 제21회풍물한마당 대동놀이 공연에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풍물굿패 삶터와 사단법인 민족경기굿연합 수원시 지부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으며 대부도사랑풍물패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 했다.

이날 공연에는 풍물굿패삶터, 풍물굿패 끈고빛사위, 수원농악단, 고창농악 전수연합, 고색전통 농악보존회 등과 함께 무대를 꾸며 관

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부도 사랑풍물패는 박연배 회장을 중심으로 현영희 단장, 김길준 사무국장, 황다영 총무를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경기창작센터에서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며 전통문화 계승에 힘쓰고 있다.

이날 공연을 마친 박연배 회장은 “우리 풍물패가 올해로 11년이나 된 만큼 대부도 주민과 함께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자주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중 기자
realestateksj@daum.net



전통농악보전 목적으로 11년전 창단된 대부도사랑풍물패가 지난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수원시가 주최한 제21회풍물한마당 대동놀이 공연에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김선중 기자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서 만나는 풍도 특별기획전 개최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서 풍도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진행 중인 특별기획전은 풍요로움을 간직한 섬 안산 풍도의 자연을 주제로 한 '섬, 풍도를 만나다'와 '기억프로젝트 IX: 풍도 풍유도'로 구성됐다.

'섬, 풍도를 만나다'는 풍도와 도리도의 이주 문화, 그리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풍도 풍어제를 주

제로 한 유물을 통해 풍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기억프로젝트 IX: 풍도 풍유도'는 현대미술가 오제성 작가가 참여해 풍도 생태와 민속문화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다. 풍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민속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자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보고 있다.

1960년대 대남초등학교 총각 선생 3명이 대부도 열아홉 살의 섬 처녀들과 결혼한 사실도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는 이미자선생팬클럽 나미주 회장도 특별하게 참석해 노래를 부르면서 최근 은퇴한 가수 이미자 선생의 옛 모습을 되새겼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시협회장배 전국 우드볼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14일 토요일 안산호수공원 우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안산시협회장배 전국 우드볼대회가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태창 기자

전국 400여 명 선수 참가 안산시 생활체육 우드볼 위상 전국에 일인 대회

14일 토요일 안산호수공원 우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안산시협회장배 전국 우드볼대회가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생활체육 우드볼 선수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광중 안산시체육회장, 정승현·김철진 경기도위원을 비롯한 각 지역 우드볼협회장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다양한 연령과 실력의 선수들이 참가해 여자 개인전, 남자 개인전, 여자 복식전, 남자 복식전, 혼합 복식전 등 부문별로 열린 경쟁을 펼쳤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안산시 우드볼은 질적·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재상 안산시우드볼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협회장님들과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대회 개최에 적극 협조한 이민근 안산시장, 김효식 안산시청 공원과장 및 관

계 공무원들, 이광중 체육회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는 안산 우드볼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광중 안산시체육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려 걱정했으나 맑은 날씨와 함께 전국에서 찾아주신 생활체육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현, 김철진 경기도의원도 축사

를 통해 “안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드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공을 쳐서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안산시민과 전국 참가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15년의 역사를 지닌 안산시 생활체육 우드볼의 성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초지고등학교 축구부 제43회 금석배 축구대회 3위 쾌거

조 1위로 16강에 진출 아깝게 결승진출 좌절

안산 초지고등학교 축구부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제43회 금석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전국 3위에 오르며 안산 축구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개최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강호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초지고는 예선에서 영등포선유 FC(1:0), 청학FC(2:0)를 차례로 꺾고, 새만금FC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16강전에서는 이리고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었고, 8강전에서는 충원고와 접전을 펼쳤다. 후반 20분까지 0:0의 균형이 이어지던 중, 11번 임우찬 선수가 하프라인 측면에서 상대 패스를 차단한 후 약 40미터를 단독 드리블로 돌파해 킥백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를 26번 김경원 선수가 아크 부근에서 인사이드 슈팅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후 이어진 상대의 거센 반격에

도 불구하고 초지고 선수단은 끈끈한 조직력과 강한 투지로 경기를 끝까지 지켜내며 1:0 승리를 거두었다.

4강전에서는 강호 신라고를 상대로 분전했으나 0:2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그러나 대회 최종 3위를 기록하며 전국 강호들 사이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초지고 축구부는 탄탄한 수비 조직과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으며, 수비진과 골키퍼의 선방 또한 돋보였다. 특히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강한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써 전국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이광중 안산시체육회장은 “초지고 축구부의 이번 성과는 선수 개인의 노력과 지도자의 헌신,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 중앙중 야구부,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3위 쾌거

전국 67개 중학교가 참가한 대회에서 준결승 진출 성과

안산 중앙중학교 야구부가 '제72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투지를 앞세워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안산 중학교 야구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이번 대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북 경주 베이스볼파크와 포항야구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전국 67개 팀 2,3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전국 대회다. 중앙중은 15세 이하부로 출전해,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중앙중 야구부는 조별리그에서 전남 여수중을 상대로 10:0, 세종 인터미들주니어를 상대로 10:3 승리를 거두며 2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다. 이어 16강전에서는 전북 전주팀을 8:5로 제압했고, 8강에서는 경남 마산동중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3:0 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다.

특히 8강전에서는 1번 서하람 선수와 19번 이서빈 선수가 선발과 중간계투로 나서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5회 초까지 0:0의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다. 5회 말, 상대 투수 교체 직후 김민경 선수가 1타점 적시타를 기록했고, 뒤이어 구수형 선수가 2타점 추가 적시타를 터뜨리며 단숨에 3점을 뽑아냈다. 이후 2학년 투수 정성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 남은 이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준결승전에서는 서울 이수중을 상대로 분전했으나, 2:7로 패하며 결승



안산 중앙중학교 야구부가 '제72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투지를 앞세워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안산 중학교 야구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김태창 기자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그러나 전국 67개 중학교가 참가한 대회에서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준결승 진출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중앙중 야구부의 성장 가능성과 경기력을 충분히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앙중 야구부는 강도 높은 훈련과 체계적인 팀 운영 아래 안정된 수비와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선수 전원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광중 안산시체육회장은 “중앙중 학교 야구부의 활약은 선수들의 열정과 지도자의 헌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응원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산시 체육회는 학생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원곡초등학교 미래학교의 출발을 알리는 준공식 개최

새로운 공간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장을 여는 미래학교

안산원곡초등학교(교장 안복현)는 17일 경기미래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3,411㎡ 규모로 조성한 미래학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박해철 국회의원,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회장,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시의회 의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직원·학생·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번 준공식은 안산원곡초등학교의 70년 역사를 압축한 영상의 상영, 그리고 안산원곡초등학교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기 위한 제막식과 축하공연, 추진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학교시설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격려사에서 “안산원곡초등학교가 다문화 밀집학교의 대표학교로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개축으로 새로운 학교에

안산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사, 디지털 교육의 변화 선도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13일 대동서적 세미나실에서 관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패들렛 세상 한 걸음 들어가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찰을 기록하는 패들렛'이라는 주제로 ▲기록의 중요성 ▲패들렛 사용법 ▲패들렛을 활용한 다양한 기록 방법 등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되는 패들렛'을 주제로 ▲학부모와의 소통 ▲교사들과의 배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사는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들의 실제 놀이를 기록하고 놀이 결과물과 작품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한다. 패들렛은 관찰 기록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의 도구로서 뛰어나다. 교사들은 이 연수를 통해 패들렛의 사용법 외, 다양한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또한, 연수 후 실행학습을 통해 패들렛을 사용함으로써,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서 보다 풍성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복현 원곡초 교장은 “원곡초는 다양과 포용성에 기반한 교육활동 운영을 통한 주도적 인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학교가 ‘누군가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

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평생교육의 장,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교류의 거점 공간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갈 미래지향적 교육비전이 반영된 미래학습 공간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고잔동 지사협, 마을 환경개선 벽화 프로젝트



단원구 고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원고잔공원내 노후된 컨테이너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우연 작가가 경기공유학교 사업에 공모해 고잔동 지사협, 안산보호관찰소 봉사자, 경기공유학교 소속 학생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함께 만드는 고잔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원고잔공원내 노후된 컨테이너에 생동감 있는 벽화를 그려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재형 위원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

도 벽화 그리기에 최선을 다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현 고잔동장은 “이번 벽화 작업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선부3동 새마을협의회,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



단원구 선부3동 새마을협의회는 매년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부3동 새마을협의회는 통장협의회와 함께 주민들에게 자원 재활용 및 수거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선부3동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택환 선부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주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 큰 힘이 된다”라며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다양한 재활용 운동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현 선부3동장은 “선부3동 새마을협의회와 지속적인 재활용 활동이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선부3동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신길동 통장협의회, 신길동 일대 제초 작업 실시



단원구 신길동 통장협의회는 16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회전교차로 신길동 진입로를 중심으로 잡초 제거 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제초 작업에는 신길동 통장 30여 명이 참여해 신길동 행복복지센터를 기점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는 주요 장소의 무성한 제초 작업을 하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천능호 통장협의회 회장은 “최근 고온과 잦은 비로 빠르게 자란 잡초를 제거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신길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제초 작업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전했다.

덧붙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신길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월피동 통장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진행



상록구 월피동 통장협의회는 16일 통장과 동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환경정화 활동을 보고 동네 주민들도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다”고 격려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월피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준비된 청소도구를 들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와 공원, 골목 등 생활 쓰레기 가 쌓이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신안산대 사회복지학과, 초자동에 선풍기 후원



단원구 초자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19대(7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물품은 지난 5월 28일 교내 '모금전문가역량강화교육' 과정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해 모금한 금액으로 구입했다.

이날 나눔에 참여한 이연화 학생 대표(사회복지학과 2학년)를 비롯한 참가 학생들은 “이번 바자회는 기획부터 실행, 자원 연계 및 대상자 지원까

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역할을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병호 초자동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이 더해져 초자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동에서도 여름철 취약계층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돌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해양동 체육회, 주민화합 족구대회 개최



상록구 해양동 체육회는 지난 14일 동 체육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양동 주민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유관단체 회원은 물론, 해양동 조기축구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족구, 피구 등 게임을 함께하며 참여자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권영덕 해양동 체육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열띤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지역주민

및 유관 단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동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아 해양동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과 유관단체가 함께 땀 흘려 경기에 참여하고 민관이 행사를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처럼 화합하여 더 행복한 해양동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 토지분양 / 컨설팅



양지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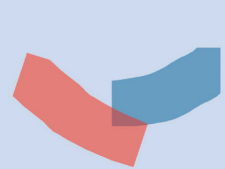
대표 김상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 (방조제길 113)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래기획

대표 이 병 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성원 전기

대표 : 조억 M : 010-4632-9779

팬션, 주택, 신축, 개축,
전기A/s 고장수리, 전기, 조경공사 일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웅진군지회, 안보의식 고취 행사

6.25 전쟁당시 음식시식회 및 호국안보전시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웅진군지회(지회장 황경연)는 18일, 웅진군청 파도광장에서 6.25 전쟁 당시 음식 시식회 및 호국 안보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6.25 전쟁 당시의 어려운 식생활을 재현한 음식 시식과 함께, 다양한 안보자료와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역사의 교훈과 안보의식을 고취하였다.

황경연 웅진군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 모두가 호국보훈의 뜻을 되새기고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복 군수는 “웅진군은 6.25 전쟁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웅진군지회는 18일, 웅진군청 파도광장에서 6.25 전쟁 당시 음식 시식회 및 호국 안보 전시회를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의 최전선에서 값진 희생을 감내한 호국의 고장”이라며, “군민과 함께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와 안보수호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웅진군과 자유총연맹 웅진군지회는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과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보 의식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해안쓰레기 취약해변 정화를 위해 웅진청정호 출발



웅진군은 올해 4월 취향한 ‘웅진청정호’가 지난 12일 소이작도 약진남어해변 등에서 열린 클린업데이 행사에 투입되어 도서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윤성용 기자

자월면 클린업데이 지원

웅진군은 올해 4월 취향한 ‘웅진청정호’가 지난 12일 소이작도 약진남어해변 등에서 열린 클린업데이 행사에 투입되어 도서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진행된 클린업데이 행사에 주민, 자월면사무소, 웅진군청, 해군, ㈜웅진해운 등에서 약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페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그물, 밧줄 등 약 6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특히, 이번에 정화작업이 진행된 약

진남어해변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있어, 그간 해안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웅진군은 웅진청정호 투입을 통해 해안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하며, 향후 정화작업의 모델 사

례를 제시했다.

수거된 해안쓰레기는 작업정을 통해 웅진청정호로 실려 회수되었으며, 인천 등지의 소각시설로 이송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 임시이사회 개최

2025년 제2회 이사회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3일, 웅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25년 1학기 장학생 선발(안)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44명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1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문경복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곧 웅진군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인재들에게 장학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섬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생 선발 ▲장학관 운영 ▲관외통학 고등학생 지원 ▲북도학사 지원 ▲재능개발 지원 ▲대학수학능력 시험 수험생 지원 등 폭넓은 장학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3일, 웅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25년 1학기 장학생 선발(안)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자월면 ‘음악행사孝잔치 및 먹거리장터’ 개최

14일, 장골해수욕장에서 자월면 부녀회와 선드림 동호회가 공동 주관으로

웅진군 자월면(면장 김유화)은 14일, 장골해수욕장에서 자월면 부녀회와 선드림 동호회(인천 주안)가 공동으로 주관한 ‘효잔치 음악행사 및 먹거리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자월면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특별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서는 부침개, 국수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었으며, 선드림 동호회의 라이브 밴드 공연은 해변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행사에는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

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감상하고 음식을 나누며 여름의 정취를 만끽했다.

김유화 면장은 “무더운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음악과 축제를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자월면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대부도 해병전우회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도, 해양레저 동호회와 공동으로 조피볼락 치어 6만 마리 방류 계획

오는 22일 제부마리나
출발해 입파도 근처에서
민간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치어 방류하는 행사는 처음

해양레저 동호회인 최초로 레저보트마니아와 함께 오는 22일 연안 제부마리나에서 출발해 입파도 근처에서 조피볼락 치어 6만마리 방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방류는 민간 참여로 그동안 레저보트 동우회에서 2023년도부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다.

이곳 레저보트마니아 준스파파 매니저는 “어렵게 만들어진 방류계획인 만큼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장 치어들이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는 온도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바다수온이 안전한 때를 기다려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치어방류 행사에는 동호회 회원들 소유의 레저보트 50척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한다.

경기도 화성 입파도·국화도 해역에 조피볼락 치어 6만 마리를 방류하는 민간 주도 최초 행사다.

치어 구입은 레저보트매니아 회원들의 자발적인 치어 방류 기금 모금



해양레저 동호회인 최초로 레저보트마니아와 함께 오는 22일 연안 제부마리나에서 출발해 입파도 근처에서 조피볼락 치어 방류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치어 방류 행사에 사용될 보트 종류의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으로 진행 되고, 동호회 회원 및 경기도와 화성시 해양수산과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계기로 바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관심을 갖어줬으면 좋겠다는게 레저보트마니아 관계자들의 바람이다.

레저보트마니아는 해양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2014년에 결성돼 현재 전국 약 5만4천400명의 동호인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동호회다. 매년

경기국제보트쇼에 참여해 올바른 보트문화 확산과 입문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저보트마니아는 이번 치어방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전에 경북산불로 전국민이 마음 아파할 때 카페 자체에서 자발적인 모금과 자원봉사까지 나서는가 하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낚시3법 개정과 같은 낚시문화발전을 위해서도 모

범적으로 나서는 등 항상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장은 “민간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치어 방류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는 민관협력 수산자원조성의 선도 사례이자 레저와 어업의 상생을 여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확대돼 수산자원관리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임태희 교육감 “장학은 교육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경기도교육청, 13일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담론을 펼쳤다.

주요 순서는 ▲경기미래장학을 통한 학교자율운영 확대(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정책 추진의 핵

심 동력으로서의 장학(신종철 안일중 교장)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자 일동은 학교가 학교자율장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장학이 폭넓고 깊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임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경기미래장학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공유하며 정책과 현장, 실천과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과거 장학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쪽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앞으로의 장학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김진경 의장, 도-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중재나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양 기관 관계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 되지 않도록 해야”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들마저 제기되자, 직접 조율을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

한별(더민주·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전까

지 양 기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와, 당장의 일상”

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 정 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대부도 학생 및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대부중·고등학교 밴드부 엑시트EXIT 전 학생의 10%가 밴드 멤버, 문준기 음악교사가 지도... 학생들 자부심 대단



지난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한 2025 안산시 청소년예술제에서 밴드 공연을 마친 대부중·고등학교 밴드부 엑시트(EXIT)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대부중·고등학교 밴드부 엑시트(EXIT) 학생들은 물론 대부도주민들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대부도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엑시트(EXIT)는 밴드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탈출구를 찾는다는 의미로 추정되고 있고 최소 1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통 있는 밴드 동아리다.

대부중·고등학교 밴드부 엑시트(EXIT)가 지난 14일 토요일 대부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부도복지센터와 학부모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부도 제2회 사랑나눔 대축제에서 초청공연을 펼쳐 축제의 장을 한껏 끌어올렸다.

엑시트(EXIT)멤버 구성

엑시트(EXIT)는 총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6명이다. 엑시트(EXIT)는 2019년부터 안산

시 청소년예술제에서 꾸준히 수상 실적을 쌓고 있다. 지난해에도 교내 활동으로 한마음 체육대회와 황금제(축제), 대외 활동으로 안산시 청소년예술제(고등 2위), 대부포도축제 공연을 펼쳤다.

활동상황

올해는 교내 활동으로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공연을 펼쳤고, 작은 음악회(예정)가 준비되어 있다. 대외 활동은 안산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메타열정유 공연, 안산시 청소년예술제(중등 3위), 대부도 사랑 나눔 대축제 공연 등 작년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 중이다. 지역 축제에서 엑시트(EXIT)를 초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연습방법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년

또는 학교급별로 모여 방과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방음설치가 되어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한다. 물론 대회가 있거나 행사가 있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연습하기도 한다. 중학생은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다양한 공연 활동에 참여하며, 고등학생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리 부원 선정

동아리 부원은 일 년에 한 번, 학기 초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과 간단한 음악 적성 테스트 후 최종 동아리원을 선정한다. 공연 동아리 특성상, 활동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동아리에 큰 타격을 주게 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하고 일단 선발하면 최소한 1년은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의 특징

학생들은 밴드 악기(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등을 동아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부족하지만 성실히 연습하며 점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다.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 성장하며 점점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었던 몇몇 학생들이 밴드부에 정착하며 안전한 곳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학교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다.

문준기 지도교사 소개

엑시트(EXIT) 지도교사는 19학번으로 지난해 첫 부임지 대부중학교 음악교사로 발령받은 문준기 교사다. 부임하자마자 문준기 교사가 엑시트(EXIT)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문 교사는 중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악기 연주나 밴드 활동에 참여했으며, 대학 밴드 활동도 꾸준히 펼쳐 밴드

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 따라서 밴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모든 밴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음악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대부중·고등학교 밴드부 입장에서는 복덩어리(?) 교사가 넘칠 채 굴어온 것이다.

밴드부에 대한 고민

대부도 내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밴드부, 안산시 행사에 참여하며 대부도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밴드부, 밴드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며 책임감과 협동심을 길러 인성적으로 성장하는 밴드부가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지도교사가 바뀔 경우 동아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승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대부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용음악인의 재능기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문 교사가 밴드 선배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문준기 교사의 호소

“밴드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조력해주는 학교와 학부모님, 지역사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면서 “밴드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 실용음악인들의 재능기부가 절실합니다. 대부중·고등학교 밴드부 엑시트(EXIT)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멤버 학생들의 향후 각고

밴드부 엑시트(EXIT)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생각도 다양하다.

한 학생은 “학교가 끝나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평소 하고 싶었던 밴드부 활동을 해보니 재미있습니



다. 특히 내가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공연까지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고 말한다.

다른 학생도 “밴드부 활동을 하며 다루던 악기에 큰 흥미가 생겼고, 전 공으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공연이 많아져서 학업과 병행하려면 힘들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엑시트(EXIT)에 필요한 재능기부 지도교사

대부중학교 학생은 현재 101명이다. 그중 19명이 밴드부 엑시트(EXIT) 멤버다. 대부고등학교 61명 중에서도 6명이 밴드 단원이다. 전교생의 10%가 밴드활동을 하고 있다. 엄청난 분위기다. 학생들은 밴드를 하면서 자

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감 넘치는 학창시절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또 연습하면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 하지만 음악으로 치료하고 밴드로 녹여내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문화예술 역량은 뛰어나다. 끼가 넘쳐난다. 채워줄 공간과 채워줄 교사가 부족하다. 채워줄 인프라가 부족하다. 재능기부 선생님의 초빙이 그만큼 절실하다.

지금은 문 교사가 밴드를 다룰 줄 알고 있어 제대로 지도하고 있지만 문 교사가 대부중학교를 떠나면 또 다시 쇠퇴기가 될 것이다. 지금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 시간이 계속되길 대부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지도교사 문준기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1회] 소금뚝배 이구영 선장과 마포나루의 작사자 일행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조사자 신정웅 교장, 김선철 교장, 박명원 의원, 이군희 지회장은 2018년 8월 8일 (수) 오전 대부남동 흠곶 마을 소금뚝배 선장 댁을 찾아가 1960년대 마포나루에서 소금뚝배를 타고 대부도에 온 방송작가 일행과 관련 된 이야기를 들었다.

이구영 소금뚝배 선장을 알게 된 것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 예교뮤지엄 100선 공모사업으로 대남초등학교 염전의 ‘동수굴염막촌 자연(煮鹽)굽는 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염막(鹽幕)을 지었다. 이때 자연 굽기 경험자를 찾던 중 흠곶 마을 이구영 선장을 만나게 되었다.

이분은 청소년 시기부터 염막에서 소금을 구웠고, 대남초등학교 주변의 창하, 강거래, 대남, 이화, 금화 등 5개 염전에서 생산된 300~700포의 천일염(天日鹽)과 젓갈, 생선 등 각종 해산물(海産物)을 소금뚝배에 싣고 마포나루까지 날랐다고 했다.

마포나루에서 흠곶으로 돌아 올 때는 한강의 썰물과 하늬바람을 타기 때문에 세 시간이면 흠곶까지 도착했다. 그래서 서울의 방송작가, 사진작가, 선생님 가족과 친구 일행 등이 마포에서 흠곶까지 소금뚝배를 타고 왔다고 했다. 특히 5월 스승의 날 즈음에는 해산물도 지천(至賤)이고, 해당화, 짙레꽃, 아카시꽃 등 봄꽃이 아름다워 서울 손님들이 유람(遊覽)을 많이 왔다고 하였다.

뚝배를 타고 대부도에 오면서 방송국 작가 일행과는 섬 생활, 소금뚝배, 염전, 학교 선생님과 자연환경 등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 외도 염전에서 벌어지는 일, 자녀 교육, 총각 선생님과 아가씨의 결혼 이야기, 마을 굴밭 만드는 일, 이웃 섬에서 겪은 일 등 주로 손님이 묻고 이구영 선장이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1960년대 초 흠곶 갯바위에 굴밭을 만들기 위해 흠곶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입파도에서 경험한 일이다. 흠곶 마을의 굴밭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 건너편 섬 입파도에 돌을 주우러 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 뚝배가 파손되어 입파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외딴집 산모(産母)가 갑자기 아이를 낳는데, 남편은 풍도 사람들과 도리도에 가고 아이들 밖에 없어, 이 선장이 산파(産婆) 역할을 하여 산모가 순산(順産)했다. 그 외에도 마을 이씨 집안 처녀가 총각 선생님과 결혼한 이야기, 스승의 날과 마을 잔치 이야기, 학교 주변의 여러 염전에서 자연(煮鹽)을 굽기 위해 자월도, 이작도 등에 가서 자연 가마용 화목(火木)을 구해 온 이야기도 하였다.



〈작사자 일행의 대부도 흠곶→마포나루 소금뚝배 항로 및 대부도 진두선창→인천 대부선(大阜船) 항로〉



대부도에 도착한 손님들은 학교 주변의 대남·이화·금화·창하염전 등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소금을 생산하는 것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과 놀다가 하숙집이나 교실에서 잠을 잤다. 이른 새벽 갯벌에서 철새 떼가 우는 소리에 잠을 깨어 해당화 향기를 맡

으며 바닷가를 거닌다. 진두선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중앙·대흥·상동 등의 많은 염전 풍경을 보면서 선창에 도착하여 대부선을 타고 서울에 간 후 이경재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지 가수의 ‘섬색시의 애절한 사랑’이 담긴 ‘섬마을 선생님’ 명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가 맞는 새로운 전환점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안산시가 올해 초 고시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총 971만㎡, 자연·생산·녹지 면적의 29%에 해당하는 이 구역은 폐염전, 낚시터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가능케 한다.

계획의 핵심은 기반시설 확충, 건축물 배치·색채 등 경관계획, 용도 제한, 도로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도로를 기부하거나 권장용도를 지키면 건폐율을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도 많다. 개인 사도(사유도로) 하부에 상하수도·가스관 설치가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사도의 공공화 또는 협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안산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도로 기준 완화, 인허가 간소화, 기반시설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하수관로가 명확하지 않아 준공에 애를 먹는 문제는 전수조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부도 주민도 역할이 있다. 무분

별한 소규모 개발보다는 공동 개발이나 협동조합 방식의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투 유치를 위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자산의 가치를 공동 관리·운영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더불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부도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천할 인물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로 확장, 대중교통 확충, 문화·복지시설 유치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폐염전과 낚시터 중심의 대규모 개발이 성공하면 인구는 5만 명까지 늘고 병원, 은행,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자족도시 기반이 갖춰질 것이다. 시화방조제 6차선 확대, 신안산선 연장 등 더 큰 인프라도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의 투자와 실행,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미래다. 대부도 복합청사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그 미래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대부도 발전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질 때 빨라질 수 있다. 대부도는 아직도 섬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도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도가 관광지고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펜션이 예약률도 높고 바산 가격으로 예약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안산시와 경기도가 재정사업으로 대부도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두가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 해 10년 후 대부도 인구 5만을 그려본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내야 한다. 그 시작이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웅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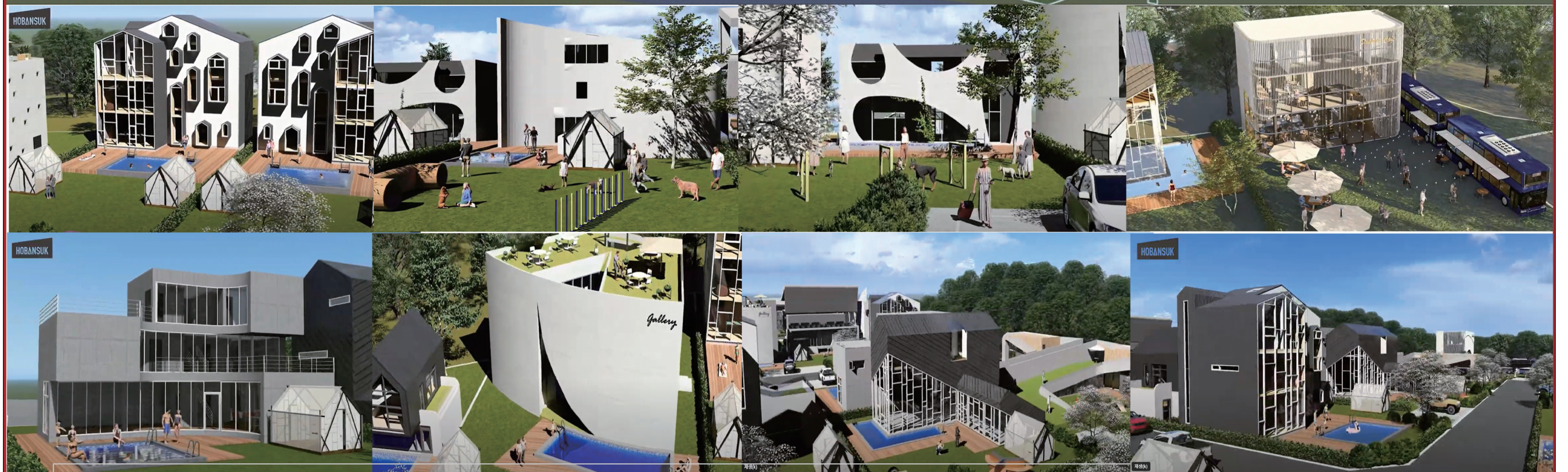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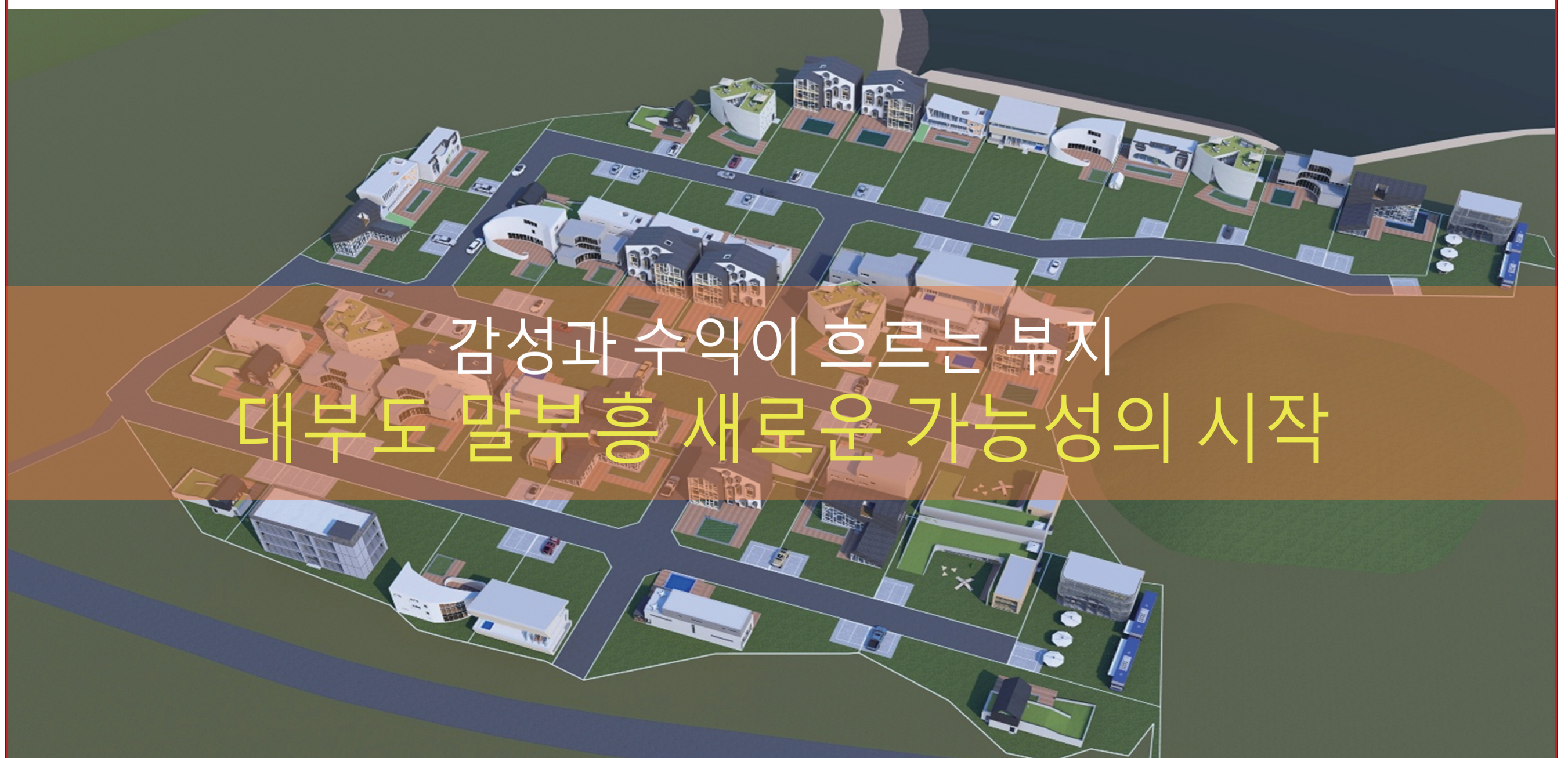
규 현 공 방 010-4071-2797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